

다국적 기업, 중국에서 전략적 배치 ‘확대’하는 리유

재중 외자기업들이 ‘중국에서의 혁신’을 중국 투자 및 경영의 발전 키워드로 삼고 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레알 (L'Oréal) 부사장 바바라 라베르노스는 상해 금교 (金桥) 에 위치한 혁신연구개발센터에서 중국팀의 연구개발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젊은 과학기술혁신 기업들과 만나 다음 투자 계획을 검토하는 등 바쁜 한주를 보냈다.

로레알은 올 들어 중국에서 혁신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혁신 바이오테크회사인 미명승광 (未名拾光) 과 전략적 협력 체결 이래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을 공동 연구개발하고 규모화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벤처 캐피털 회사 (风险投资公司) 카테이 캐피털, 상행 정안 (静安) 구와 함께 펀드를 설립해 성장 단계의 뷰티 브랜드 및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베르노스는 “중국에서 세계를 위한 혁신을 하려면 다국적 기업이 꾸준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에서 이룬 연구개발 성과를 전세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



2024년 11월 9일,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EE)’를 찾은 관람객이 로레알 전시부스에서 향수를 시향하고 있다. / 신화넷

한 것은 중국에서 중국 및 외국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을 잘 이해해야만 산업사슬 기업과 함께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이룬 혁신이 전세계에서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독일의 산업용 팬 솔루션 기업 이비엠포

스트그룹 최고전략책임자 (CSO) 토마스 뉘른베르거는 중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 랭각 환기 제품을 개발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환영받고 있다며 웨그리아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엠포스트그룹의 중국 현지화율은 약 90%에 달한다. “중국은 우리

회사의 최대 해외시장이다.” 뉘른베르거는 회사가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증설중인 서안공장 3기 증설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5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외자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상해시는 중국에서의 외자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해시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몇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다국적 기업 본부가 연구개발 혁신, 재무 관리, 투자의사 결정, 공급망 관리 등 여러 기능을 통합해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무부는 국가급 경제개발구의 집적화 (IC), 바이오의약, 첨단장비 제조 등 분야의 외상 투자 프로젝트를 중대·중점 외자 프로젝트 리스트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4월 중국에서 설립된 신규 외상 투자 기업은 1만 8,832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외자기업이 중국내 전략적 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 신화넷

류통기한 림박 식품은 기부... 중국 ‘음식의 룩색혁명’ 실천중



5월 25일, 농민들이 천진시 서청구 왕온장지에 위치한 중화현대농업 천진시범농장에서 모를 심고 있다. / 신화넷

최근 중국은 식량 절약 및 식품 낭비 방지 관련 정책 체계를 마련하며 ‘허균의 룩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천진시 서청 (西青) 구의 한 식당. ‘빈 그릇 운동’ (光盘行动) 캠페인 문구가 공간 곳곳에 걸려있다. 식당 점장 곽가 (郭珂)는 소비자들이 ‘빈 그릇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장도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를 운영 방침중 하나로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는 ‘룩색 룩식업’이라는 사회적 리념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경 등 일부 도시는 ‘식품은행’을 시험운영해 류통기한이 림박한 마트내 식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상해는 룩식업계에 ‘빈 그릇 운동’을 도입한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50% 가까이 줄였다. 지난해말 기준 상해의 룩색 인증 음식점은 2,950곳에 달했다.

‘음식의 룩색행동’은 이미 기존의 ‘빈 그릇 운동’ 범위를 넘어 농업·재배, 축산·사육, 가공·생산, 저장·운송·물류, 최종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룩색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 생산량은 처음으로 7억톤

을 넘어 전년 대비 1,110만톤 증가되었다. 이런 식량 증산의 리면에는 다양한 과학기술 기반의 손실 저감 기술들의 활약이 있다.

서청구 왕온장 (王稳庄) 진에 위치한 중화현대농업 천진시범농장은 벼 경작, 파종, 관리, 수확 등 모든 단계에서 사물인터넷 (IoT), 드론, 위성원격감지 등 과학기술을 접목했다. 중화현대농업회사 천진기술서비스센터 농장 매니저 대인강 (代仁强)은 천진시범농장이 토양 검사와 농작물 수요를 기반으로 비료 사용, 농작물 보호, 재배 방안 등을 맞춤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효율의 완효성 비료와 친환경 제품을 채택해 환경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중국과학원 지리과학및자원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식량의 전체사슬 손실률은 8%이다. 그중 생산·수확, 저장·운송, 소비 단계의 손실 및 낭비률은 각각 27%, 33%, 31%를 차지한다.

중국지속가능발전연구회 소조봉 (邵超峰) 리사는 중국은 농업생산, 물류 운송, 식품가공, 최종 소비 및 자원 처리를 포함한 식품 전체사슬의 룩색 공급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중경, 전기차 ‘전력 판매’로 경제수익 첫 창출

중경에서 전기차가 ‘에너지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면서 ‘전력 판매’ (售电) 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중경시 북배 (北碚) 구에 거주하는 전기차 차주 장씨는 V2G (전기차-전력망 연결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리용하는 기술) 충전대에서 방전 수익을 얻었다. 이는 중경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전력 판매’ 수익을 얻은 것이다. 이로써 중경의 V2G 역방향 방전 접수, 측량, 결산, 지불 등 전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며 V2G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가전력망 (国家电网) 중경전기차서비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중경

전기차 사용자들은 V2G 충전대에서 휴대전화로 스캔한 후 클라이언트 안내에 따라 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중경시는 중국 최초의 V2G 규모화 응용 시범 도시로 선정됐다. 앞서 중경시경제정보화위원회 등 부문은 2025년까지 중경시에 100개 이상의 쌍방향 V2G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V2G의 신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V2G 조화 도시를 건설하고 전력 시스템에 10만키로와트급의 쌍방향 조절 능력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넷



중경시 랑강신구 명월호수퍼충전시범스테이션 / 신화넷

/ 신화넷

무한, 10개 신규 로선 연결 저고도공항 가동

호북성 무창—한구—한양을 잇는 저고도 비행 서비스 로선을 운영하는 한상 (汉商) 저고도공항이 16일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한상저고도공항은 1개 디지털 실시간 통제 플랫폼, 2개 스마트 지휘센터, 10개 저고도 로선, 22개 스마트 착륙장으로 이뤄진 전문화된 저고도 물류 운영 시스템으로 주로 해산물, 선절화 (鲜切花), 의약품 등 상품 배송과 응급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16일, 한상저고도공항 착륙장에서 드론을 조정중인 작업자들. / 신화넷

1월-4월 오문 룩식업 지출 증가... 소매업은 감소



오문 도시 전경 / 신화넷

올 1월-4월 오문의 룩식업 지출이 소폭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문특별행정구 통계조사국 (DSEC)에 따르면 올 들어 4개월간 룩식업 전자결제 거래액은 45억 7,000만오문팔라로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그중 패스트푸드점 및 다찬청 (茶餐厅, 향향식

패스트푸드점), 즉·면 판매점은 각각 8.6%, 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매업의 전자결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한 167억 1,000만오문팔라로 집계됐다. 그중 가족 제품과 백화점 매출은 급감한 반면 약국은 6.3% 늘었다. / 신화넷

朝夕奔梦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

图说
核心价值观

中国梦